

인사드립니다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박진수 장로(평택교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그 시대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남전도회전국연합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제42회기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증경회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좇아 남전도회의 발전을 위해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회기에는 계속사업인 선교와 교육, 육성 및 교단지원 총회 승인 특별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임지련회장님들께도 축하를 드리며 지련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전도회가 더 한층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도와 전도에 모범을 보이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전도회는 교회와 교단에서 가장 힘있고 추진력 있게 일하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남전도회의 발전을 통해 교회와 교단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봉사에 솔선수범하여 타 기관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타 평신도기관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다함께 대동단결하여 새로운 선교 2세기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모쪼록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남전도회와 교단을 위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중보의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삼**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허혜숙 권사(세현교회)

지금껏 인도하시고 회장에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신임해주신 증경회장님들과 대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저에게는 바위와 같이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또 전국의 회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며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진대, 저는 단지 도구일 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 빛내고 그 지경을 넓히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62회기 한해 동안 저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교회개혁 및 작은 교회 돕기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과 동남아, 유럽 등 선교지와 한인교회 후원에도 앞장 서 세계를 품는 여전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각 지련과의 워크숍과 핫라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져 긴밀한 공조와 참여의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지련은 시상하여 장려하고 열세인 지련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여전련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여전도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성경가족 여러분, 저희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하는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중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삼**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강원주 안수집사(한우리교회)

귀한 직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심하며 귀한 결정을 해주신 증경회장님들과 대의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실하게 회장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총회 후 전국을 순회하며 지련회장과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련과 전련이 좀더 긴밀한 협조와 교류로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의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합하는 교회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하계대회를 총회교육국과 함께 BCM캠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사세미나를 강화하여 교사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총회 교육정책이 교회학교를 통하여 개교회까지 저변화되도록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행할 사업은 우선 예년부터 하던 미자립교회 빔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내사랑교회에 전달했구요 추가로 한 대를 더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많지는 않지만 교재판매대금의 이자로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획분과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세우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구상하고 유지하여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도 바뀌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회학교 실무간사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도록 하고 총회도 기존의 회의를 간소화하고 축제형식으로 바꾸며 임원선출방식도 과열을 방지하고 은혜로운 총회가 되도록 회칙 개정을 내년 총회에 상정할 생각입니다. **삼**



전국교역자부인회 회장
김선애 사모(당진교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 그 맡겨진 배역을 수행하는 배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변도 역량도 부족하지만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나리오대로 감당한다는 믿음으로 올 한해 이 배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이후 한 달 사이 벌써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본 현지 성결교회 사모님들 20명을 지난달 초청하여 위로하고 한국 총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구요,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 신대 총동문대회에서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일일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도 결식하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식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해외성결교회 사모세미나를 필리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몇 년 전 저희들의 방문 이후 한 번도 모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모들뿐 아니라 현지 여성지도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홀사모들의 모임인 안나선교회 총회 겸 위로회가 11월경에 있을 것이고 장학회와 북한선교, 성광회 지원사업 및 예성사모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회원님들의 관심과 기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모들이 총회와 세미나에 한 번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각 지방회와 개교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